

죽음은 '찰나' 또 다른 삶의 한 과정

최찬민 작가, 18일까지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Revival'展



조개 껍질과 생선 찌꺼기로 만든 드레스. 작가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몸이란 지수 화풍 사대의 물질이 인연법에 따라 모인 것이 흩어지는 것이라 설한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닌 연기 속의 생멸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서울 삼청동 선아트 스페이스에서 6월 18일까지 열리는 최찬민 개인전 'Revival'은 이런 죽음의 의미를 생선 찌꺼기를 통해 표현했다. 작가는 물고기의 생을 통해서 물고기가 죽음을 거쳐 그 찌꺼기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 받는 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작업으로 나타냈다.

수면 밖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시작돼 어시장 도마 위에서의 죽음, 찌개 속 끓는 물에 의해 삶이 흩어져 나가는 죽음, 사람들의 입 속에서 또 한번 으깨질 때의 죽음, 뼈가 발려질 때 뼈가 끊어져 나가는 죽음, 그리고 작 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뼈가 깎여지고 툴리는 죽음 등 여러차례 죽음을 거치며 점차 다른 존재로 변모하는 물고기를 고찰했다.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 자아가 인식하는 상태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막연하게 느끼며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것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에서는 '슬픔, 두려움, 아픔, 마지막'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느껴진다.

작가는 이런 죽음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새롭게 만든 물고기의 삶의 그래프는 죽음이 끝이 아닌 '전환점, 새로운 희망, 통로'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의 한 지점일 뿐이다.

작가의 손을 거쳐 처음 태어났을 때 물고기를 이루고 있던 근간인 뼈 조각들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 한다. 중요한 점은 새롭게 태어나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구성물질은 물고기일때나 생선 찌꺼기일때나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편안한 감상의 공간 속에서 관객들은 지금의 삶을 돌아본다. 인생을 죽음의 기준으로 반으로 접는다면 '처음의 태어남'과 '새롭게 태어남'의 두 시작점이 생긴다. 다시 이를 반으로 접고 접고 접는다면 죽음을 앞둔 우리들의 시간은 매 순간이 새로운 태어남이다.

작가는 여기에 또 다른 색채를 더한다. 바로 신데렐라 스토리다.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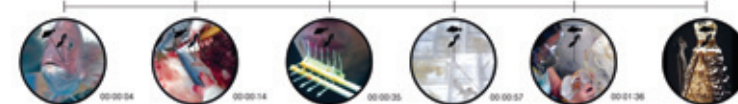
과 죽음'이란 다소 무거운 주제에서 유년 시절을 통해 친숙하게 기억되어지는 신데렐라 동화를 입혀냈다.

작가는 삶과 죽음의 시간을 반으로 접어 그 변화지점인 12시에 우리 구두를 통해 같은 존재이나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사는 찻투성이 소녀와 새롭게 태어난 여왕을 표현했다.

“왕으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매 순간 새롭게 살려는 마음에 달렸 다”는 작가의 해석은 선이륙의 한 문구가 생각난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죽음의 경험을 통하여 그 동안의 삶의 태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180도의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보기도 한다. 이들의 삶에는 변화를 일으키 어떤 지점이 존재하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의 이전을 살았던 옛 사람과 이후를 살고 있는 새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다.

자각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은 체험할 수 없음에도 자아의 죽음을 택했을 때 비로소 성숙의 자아가 발현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이 가슴을 파고 든다. 노덕현 기자



제작과정. 생선이 신데렐라 드레스가 되기까지

이은정 기자의 뽀뽀(Fun Fun)한 레시피

수수부꾸미

수수부꾸미는 엄마가 가끔 만들어주시던 별미 중 하나였다. 아직도 내 주변 친구들은 수수부꾸미가 어떤 음식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수부꾸미는 자주 만들어 먹지는 않지만, 이 음식은 맛 본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충청도가 고향인 나는 수수부꾸미를 주로 겨울철에 많이 만들어 먹었다. 어릴 적에는 생김새, 약간 딱딱한 수수의 특유의 맛 때문에 엄마가 만들어 줘도 손을 잘 대지 않았다.

부꾸미는 지방에 따라서 모양도 크기도 여러 종류며, 안에 넣는 소도 제각각이다. 엄마는 주로 부꾸미 안에 삶은 팥을 넣어 반달로 지져 만들어 줬었다.

예전에는 팥맛도, 수수맛도 잘 몰라, 엄마가 수수부꾸미를 만들어

어 주면 “맛없는 거 또 만들었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맛이 가끔 그리울 때가 많다.

예전에는 시골 재래시장만 가도 시장 한 켠에서 수수부꾸미를 쉽게 사 먹을 수 있었다.

지금 오히려 만들어 먹는 것이 훨씬 간편한 세상이 됐다. 사실 수수부꾸미는 막상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음식이다. 수수쌀을 불렀다 곱게 갈아야 하고, 팥도 오래도록 삶아야 한다.

요즘은 호떡처럼 집에서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시중이 널려있어 만들어 먹기가 훨씬 간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만든 수수부꾸미 맛이 최고인 것 같다.

가끔 잊맛없는 날에는 특별식으로 온 가족이 수수부꾸미를 나눠먹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알고가기 수수는 주성분이 탄수화물이며, 지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궁합이 잘 맞는다. 수수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서도 효과적이다. 또 수수 안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닌은 방광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세포의 산화스트레스를 줄여 염증을 완화시킨다. 수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수수쌀 250g, 팥 200g, 소금, 설탕 3큰술, 들기름

음식 만들기

- ① 수수쌀은 6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둔 뒤, 소금을 넣고 곱게 갈아준다.
- ② 팥은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삶은 뒤, 설탕을 넣고 으깨준다.
- ③ 곱게 갈은 수수쌀은 뜨거운 물을 넣고 반죽 한 뒤, 등골납작하게 빚어 기름을 두른 팬에 지져준다.
- ④ 어느 정도 반죽이 익으면, 팥을 넣고 반으로 접어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 붙여준다.

부처님 말씀 부채에 담아

지묵 스님, 단오 맞이 부채전 열어



옛 선조들은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음력 5월 5일)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려는 뜻에서 부채를 주고받았다. 궁궐에서는 단오날이면 단오선(端午扇)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보림사 주지 지묵 스님은 단오절을 맞아 6월 5-6일 장흥불교대학 보림사 제1강의실에서 '제8회 단오 부채전'을 열었다.

심우도(尋牛圖), 달마도, 새우, 승가의 풍속도 등을 부채에 담아 전시를 해온 스님은 이번에는 낙관에 부처님 말씀을 새겨 옛 서민들이 즐겨 사용한 쌍죽선에 담았다.

이와 함께 스님은 8회에 걸쳐 전시한 소장품들과 신작, 그리고 동호인 소장품 100여 개 등 200여 개를 전시했다.

10여 년 전부터 부채에 그림을 그린 지묵 스님은 “예부터 선조들은 부채에 그림을 그려 선물하는 풍습을 즐겨했다”며 “단오를 맞이해 부처님 말씀을 부채에 새겨 선물하고 전통을 살리고자 전시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은은 기자

아리랑 함께 부르며 한마음

동국대 경주캠, 25일 미워스콘신대 협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5월 25일 교내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미국 위스콘신대 음악대학 교수 및 학생들과 국제교류음악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동서음악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

에서는 위스콘신대 교수진의 독주와 박종원 교수(위스콘신대)의 지휘하에 학생 25명의 특인 영가 등 4곡 합창, 박상진 교수(동국대)의 지휘하에 동국대 한국음악과 국악 오케스트라가 '아리랑' 등 4곡이 연주됐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추모예술제

6월 10일 오후 2시

일제 강점기 3·1운동의 주역이면서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을 기리는 추모 예술제가 열린다.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삼욱)과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은 6월 10일 오후 2시 만해 스님이 마지막 생을 마감한 성북동 심우장에서 추모다례제 '제67주기 만해다례제'를 봉행한다.

행사에서는 심상헌 동방대학원대학 교수가 집전을 맡으며 정삼욱 총장, 조태권 원장이 인사말을 맡는다.

이후에는 헌다(獻茶)식도 함께 봉행된다. (02)3668-9821 이은은 기자

천도재·예수재 용품은 동진기획·붓다쇼핑에서...

그동안 동진기획·붓다쇼핑을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가 1,000원
구성: 금강경따라니, 지장경따라니, 아미타경따라니, 신묘장구경따라니, 천수다라니, 개팔전, 상평통보, 만관, 신묘장구다라니, 지전, 불투

중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A형-여 정가 1,3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여 정가 1,100원 할인가 900 (100벌 이상)
C형-남 정가 1,200원 할인가 950 (100벌 이상)
D형-여 정가 1,100원 할인가 9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녀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예수재합A (50개 1박스) 정가 50,000원 할인가 40,000 (150% 이상)
부모문중경 목련경 정가 4,000원 할인가 2,400 (150% 이상)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강경따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53x180mm

한지점은 영가옷/위패 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종이신발(남/여) 1켤레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촉원카드 칼라 할인가 60원(2,000장 이상) 정가 10,000원(100매) • 크기: 268x190mm

자비도량참법(세로) 할인가 9,000원(20권 이상) 정가 15,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할인가 1,800원(100권 이상) 정가 3,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드를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소수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제품의 특징

- 인체에 맞는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달삼! 02)2004-8216
농협 053-011-269062 (안대목교신문사)